

2022

설날 가정예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가 301장

1.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 주시고 모든 일을 주안에서 행통하게 하시네
2.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3. 주님 다시 뵈을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벼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 가 아버지의 품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찬송가 559장

1. 사철에 봄바람 불어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잇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설날 가정예배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부교회**

위임목사 **윤교식**

(03094)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봉로 101-5

☎ 교회 02)745-1903~1905 팩스 02)744-5079

오늘은 설 명절입니다. 지난 일 년 동안 지켜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신앙고백 다 같 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찬송가 301장 다 같 이

기 도 말 은 이

사랑의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여 모든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가족이 힘들 때나 기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새해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계획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봉독 시편 37편 4~6절 다 같 이

말 씀 여호와께 맡기는 한 해 다 같 이

찬 송 찬송가 559장 다 같 이

주기도문 다 같 이

여호와께 맡기는 한 해

- 4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 5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 6 네 의를 빛 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 같이 하시리로다

오늘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새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부어주실
복을 기대하며 2022년을 기도와 말씀으로 세워 나가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4절

오직 여호와를 기뻐할 때, 여호와가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준다고 말씀합니다.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올 한해 우리 가정 가운데도
이 고백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또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권면합니다 5절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란 결국 나의 인생 전부를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네 길”이란 인생 전체 여정뿐만이 아니라 삶의 계획, 목표, 방법 모두를
포함하는 말로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6절입니다.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우리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우리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 먼저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오직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며,
하나님께 우리 삶 전체를 맡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